

영화 <부활> 무비특가이드

문화선교연구원의 <무비특가이드>는 친구, 가족, 셀모임, 구역모임 등 지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화를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자료”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

1.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2. 영화 <부활>은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두드러진 부분은 호민관 ‘클라비우스’의 등장입니다. ‘클라비우스’를 등장시킨 감독의 상상력에 공감하나요? ‘클라비우스’의 마음을 ‘클라비우스’의 입장에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3. ‘클라비우스’를 포함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그 이유도 함께 말해보세요.

4.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활동 후 '나눔 사진'과 '느낀 점'을 성함과 연락처와 함께 cricumorg@naver.com이나 필름포럼 데스크에 보내주세요. 추첨 후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영화 <부활> 보고 더 깊이 예수님 만나기

<부활> 무비톡가이드

TALK

www.cricum.org/1014

www.facebook.com/cricum

story.kakao.com/ch/cricum

<부활> 무비 인사이드

서울국제사랑영화제 X 필름포럼 X 문화선교연구원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활>은 예수의 제자나 가족이 아닌 로마군 호민관 ‘클라비우스’의 시선을 통해 재구성된다.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위의 예수를 주목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의 마지막 말에 귀 기울이는, 대부분의 관객이 관습적으로 기대하는 거룩하고 장엄한 순간이 아닌, 그저 마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일상적인 처형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십자가 아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먼저 처형된 죄수들의 악취 나는 시체더미가 쌓여있는, 전혀 신성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목도한다.

한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클라비우스’에게 사라진 예수의 시체를 찾으라고 명령한다. ‘빌라도’의 오른팔, 영민한 무사이자 이성적 판단을 겸비한 주인공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사건, 즉 ‘부활한 예수’와의 대면은 어쩌면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칼을 맥없이 떨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무신론자의 눈으로 본 예수 부활 사건은 ‘믿음’이 곧 은혜이자 기적임을 반증한다. 부활한 예수의 빛을 목격한 보초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하고 놀라웠던지 언어로는 그 장면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단서들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부활을 끝내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논리가 아닌 믿음과 믿을 수 있는 은혜다. ‘부활’이라는 기적적인 사건과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주인공의 시선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동안,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은 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비를 다시 떠올리는 작은 기적을 기대해봄직 하다. - 심윤정 필름포럼 프로그래머

<함께 볼 말씀>

- *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5-6절 삼반절)
- *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절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31절)

